
제2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함께 걸어가는 교회 - 공동합의성”



■ 일 시 : 2019. 10. 19.(토) 오후 2시 ~ 6시

■ 장 소 : 주교좌 남천성당(1층 대성당)



천주교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2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함께 걸어가는 교회 - 공동합의성”

■ 일 시 : 2019. 10. 19.(토) 오후 2시 ~ 6시

■ 장 소 : 주교좌 남천성당(1층 대성당)



천주교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 하느님 아버지, 저희 평신도에게 베푸신 특은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평신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부어주시어
스스로 교회의 터전을 닦도록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교회 발전에 앞장서
자랑스런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소서.

-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를 내시고
이 겨레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그 거룩하고 빛나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 ◎ 주님, 저희가 이 시대 평신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늘 새로워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목 차

I. 일정표		---- 07
II. 시작기도 및 인사		---- 08
III. 강연 및 약정토론		---- 09
1. 기조 강연	- 총대리 권지호(프란치스코) 신부	---- 09
2. 주제 강연	- 노우재(미카엘) 신부	---- 13
3. 함께하는 찬양	- 최현숙(아가다)	---- 44
4. 약정 토론	- 최성욱(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49
	김경희(마리미카엘라) 수녀	---- 53
	김종대(가롤로 보로메오, 망미성당)	---- 57
	이종열(가밀로, 옥동성당)	---- 61
IV. 자유 토론		---- 64
V. 마침기도 및 강복		---- 64
	[별첨 1] 토론 질의서	---- 65
	[별첨 2] 아카데미 발전 의견서	---- 67

I **일 정 표**

· 진행 : 홍영택(베드로) 선교사목국 부국장 신부

일 시	주요내용	담 당
14:00~14:10 (10분)	시작기도 인 사	도용희(토마스 아퀴나스) 교구 평협회장 교구장 손삼석(요셉) 주교
14:10~14:30 (20분)	기조 강연	총대리 권지호(프란치스코) 신부
14:30~15:30 (60분)	주제 강연	노우재(미카엘) 신부
15:30~15:40 (10분)	휴 식	성전 내 음식 반입금지, 생수비치
15:40~16:00 (20분)	찬 양	함께하는 찬양 - 최현숙(아가다)
16:00~17:50 (110분)	토 론	좌 장 : 이장환(마르티노) 선교사목국장 신부 토론자 : 최성욱(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김경희(마리미카엘라) 수녀 김종대(가롤로 보로메오, 망미성당) 이종열(가밀로, 옥동성당)
17:50~18:00 (10분)	총 평 마침기도 및 강복	총대리 권지호(프란치스코) 신부 교구장 손삼석(요셉) 주교

II

시작기도 및 인사

1. 시작기도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 하느님 아버지, 저희 평신도에게 베푸신 특은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평신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부어주시어
스스로 교회의 터전을 닦도록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교회 발전에 앞장서
자랑스런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소서.

-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를 내시고
이 겨레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그 거룩하고 빛나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시대 평신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늘 새로워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인사

- 1) 도용희(토마스 아퀴나스) 교구 평협회장
- 2) 교구장 손삼석(요셉) 주교

Ⅲ | 강연 및 약정 토론

1. 기조 강연

친교의 교회론과 Synodalitas!

총대리 권지호(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제2차 평신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평신도 아카데미 주제는 ‘공동합의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synodalitas’입니다. ‘함께 걸어간다. 함께 한다.’는 뜻을 지닌 공동합의성은 얼핏 어렵고 생소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지난 2천 년 동안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고 한결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공동합의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공동합의성은 교회의 구성적 차원(dimensione costitutiva)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시노드(공동합의)라는 단어 안에 이미 모두 담겨 있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1쪽)

교황님께서 강조하는 이 공동합의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현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적응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과학,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 시대를 넘어 우주시대로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중세기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회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쇄신(Aggiornamento)을 위하여 공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의회가 개최되면서 제일 먼저 공의회는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교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문하였습니다. 물론 공의회는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은 일관되게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성서는 교회를 ‘카탈’, ‘에클레시아(ecclesia)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현존을 모시고 있는 회중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회중은 이 땅 위에서 구체적인 역사를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교회를 외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내면적인 모습은 신약에 와서 완전히 밝혀집니다. 신약은 교회의 내면적인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더 깊은 신비 즉 교회가 바로 ‘친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 의 표징이며 도구이다.”(교회헌장 1항)

여기에서 친교의 교회론이 나온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령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친교를 나누는 하느님이시며, 교회는 성자를 통하여 성삼위이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동시에 인간들 사이에서 그 친교를 이루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교이며, 전 인류와의 친교라는 것입니다. 1요한 1,3은 교회의 이 친교를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Koinonia, 라틴어로 comunio라고 하는 친교는 나눔, 동참이라는 뜻입니다. 이 koinonia를 우리는 친교, 사귄다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 아들과 나누는

사랑을 당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사이에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형제들과도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본 모습대로 이 친교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 친교를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조직이 바로 ‘공동합의성’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친교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법과 새로운 조직이 생겼는데 이 모두가 바로 공동합의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편교회 차원에서는 주교대의원회(Synodus Episcopalis)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 주교회의의 대표가 보통 3년마다 로마에 모여 교황이 제시하는 특정 사목현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것은 교황 혼자서 보편교회를 사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교단의 공동합의를 통하여 사목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주교회의(Conferentia Episcopalis)가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그 지역 주교단의 공동합의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주교들의 사목 협의체입니다. 교구에는 사제평의회와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사제평의회는 교구장의 원로원회의(senatus)로서 교구장과 사제단의 공동합의성을 잘 드러냅니다. 사목평의회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표로서 이루어지는 사목협의기관으로서 교구민의 공동합의성을 잘 드러냅니다.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합의성을 위해서는 본당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합의를 하는 목적은 공동식별을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책임자나 사목자 혼자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백성이 다 함께 식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교황님은 주교대의원회를 통하여 보편교회에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주교단과 함께 공동식별을 하는 것입니다. 교구장은 사제평의회를 통하여 사제단과 함께 공동식별을 하는 것입니다. 본당사제는 본당사목회를 통하여 본당신자들과 함께 공동식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식별은

각자의 신분과 직분이 다를지라도,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공동사제직을 수행하는 교회의 공동주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라는 삼중직무를 받은] 우리 모두는 공동합의를 통하여 다 함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라는 교회의 지상사명, 즉 복음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공동합의를 이루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각자가 성령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매일의 성독과 기도생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체로 주님과 일치 이루고 형제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모여, 교회의 공동선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관이나 조직을 통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공동합의를 함께 실행하고 함께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치되면 마태 18,20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이 말씀은 공동합의성을 통하여 주님이 현존하는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 주제 강연

교황 프란치스코의 시노달리타스 가르침 : 복음의 기쁨을 살기 위하여

노우재(미카엘) 신부

들어가는 말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다.” 이는 세계주교대의원회(주교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노두스’라는 단어 안에 이미 모두 담겨 있다.”라고 하셨다. 시노달리타스와 시노두스가 무엇이기에 교황님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 시노달리타스는 새로 생긴 용어이다. 어원을 살펴보면, 시노두스(Synodus)라는 라틴어 명사의 형용사형이 시노달레(synodale)이고 다시 그 명사형이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이다. 라틴어 시노두스는 희랍어 쉰(syn, 함께, 공동으로)과 호도스(hodos, 길, 걷기, 여정)의 복합어로서, ‘함께 걸어감’ ‘공동 여정’을 뜻한다고 하겠다.

고대 교회에서는 ‘교회’(ecclesia)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전 세계 주교 대표들의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시노두스에서 파생된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걸어감의 본성’ ‘공동 여정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시노달리타스 단어 자체는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서 부각되었지만 실제 교회의 역사 안에 그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교황님께서 중요한 자리마다 시노달리타스를 언급하시면서, 이 단어에 대한 본격적인 신학적 성찰이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신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심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 『교회의 생활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La sinodalità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라는 제목의 교과서적인 소책자를 발간했고, 한국어 번역본은 2019년 7월 출간되었다. 라틴어 시노달리타스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산하 기구 신앙교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동합의성’으로 번역했다. 공동식별과 공동결정이 시노달리타스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시노달리타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을 풀어가겠다.

시노달리타스 낱말을 처음 듣는 이는 부담감과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래서 먼저 맥락을 알 필요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한다. 교황으로 선출된 2013년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을 반포하고, 2016년 3월에는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을, 2018년 3월에는 교황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Gaudete et Exsultate*를 반포했다. “기쁨” 시리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의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 *Laudate Si*,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이어 작성한 첫 번째 회칙 『신앙의 빛』 *Lumen Fidei*을 비롯하여 그의 강론, 훈화, 교리교수 등 중요한 가르침에 “기쁨”의 모티브가 텍스트나 컨텍스트로 항상 등장한다. 교황님에 따르면, 신앙인은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시노달리타스를 언급하는 맥락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그분을 증언하는 기쁨이다.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쁨을 살고 기쁨을 전하는 진정한 신앙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신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해도, 교회 안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다 해도, 많이 배우고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회의 역사가 비교

적 짧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길고 긴 유럽 교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기쁨을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초대하고, 교회론적 맥락에서는 시노달리타스를 통해 이를 촉구하는 것이다. 국제신학위원회는 이렇게 밝힌다. “시노달리타스(공동합의성)에 대한 생생하고 항구적인 체험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원천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21항).

본 발제문의 주제는, 그래서, 시노달리타스와 기쁨이다. 특별히 본당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지 말해 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기쁨과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길(호도스)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언급 하겠다. 이어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공동체(원-호도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시노달리타스’를 하느님 사랑에 대한 교회의 충실한 응답의 차원에서 알아보겠다. 이는 근원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기 때문에 가능한 성찰이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고백하고 응답하며 이웃과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가르침이다.

I. ‘호도스’와 ‘원-호도스’

1. 예수 그리스도 :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호도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길”(hodos)이라고 밝히셨다(요한 14,6).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복음 선포의 여정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셨다. 마르코 복음 1-2장이 전하는 갈릴래아의 봄,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며, 병자들의 병

을 고쳐주실 때, 모든 사람이 그분께 열광하고 찬사를 보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그분을 모셔두려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났던 것이다.”하셨다(마르 1,38). 필리피의 카이사리아에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고 밝히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붙잡으려 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마르 8,33)고 베드로에게 답하셨다. “물러가라”는 말은 베드로를 내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뒤로 가서 나를 따라라”(휘파게 오피소 무)는 뜻이다. 그리고 곧바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의 길을 걷는 이’라고 스스로를 의식하셨고, 제자들도 당신의 길을 뒤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부활 이른 아침,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을 만나 뵈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요한 20,17)고 이르셨다. 부활 늦은 오후, 침통한 표정으로 풀이 죽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걸으며 말씀과 성찬의 신비를 드러내 주셨다. 제자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여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하고 환호했다. 예수님은 길을 걷는 분이셨다. 그분의 길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며,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길이다. 요한복음은 이를 “나는 길이다.”(요한 14,6)는 말씀으로 간결하게 요약한다.

그분께서 길이신 것은, 그분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영원한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가고 보여주고 전하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홀로 하느님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영원 안에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며 아드님을 낳으

신다.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는 사랑 자체, 그래서 아드님 또한 자신을 낮추고 내어드리며 사랑을 전하는 것 말고 아무 것도 하시지 않는다. 아드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느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분이시다. 아버지의 내어주는 사랑과 아드님의 응답하는 사랑은 아버지와 아드님의 사랑의 일치로 이룬다. 이 사랑의 일치와 유대가 영원 안에서부터 성령 하느님의 위격으로 드러난다. 아드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는 강생은 그분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먼저 원하셨고, 아드님께서 아버지께 사랑의 순종을 드리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히브 10,7). 아드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며 세상에 오시어 사람이 되셨다. 강생의 순간,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루카 1,34)하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는다. 그때 천사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루카 1,35)고 답한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인간 세상에 보내실 때 먼저 성령 하느님을 보내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인간 인격체를 움직이고 변화시켜, 무한하신 하느님을 수용하도록 이끄신다. 아버지는 아드님을 통해 당신 자신인 사랑 전부를 전하시고, 성령을 통해 인간 편에서 아드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마리아는 신앙과 사랑으로 하느님 아드님을 잉태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전부를 수용하였다.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선포의 여정을 끊임없이 걸으셨다. 그 정점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분의 죽음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 안에 온전히 드러나고 전해졌다. 백인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바라보며,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르 15,39)고 고백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당사자가 그분의 모습에서 삼위일체의 사랑을 알아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성호를 그으며

아버지와 아드님과 영이신 하느님께 기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삼위일체의 긴밀한 관계를 신앙으로 의식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죄인들의 손안에까지 내어주셨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악인에게 내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난다. 아버지께서는 ‘죄스런 세상’ 안에 당신의 아드님을 파견하셨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요한 3,16) 까닭에 당신의 사랑 자체를 보내신 것이다. 아드님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시지 않았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하며 사랑의 응답을 드리셨다. 아드님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시지만, 이제 죄인들의 손에 떨어져 그들의 죄를 받아들여 “죄 많은 육의 모습”(로마 8,3)으로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 사실 아드님이 겪으신 무한한 고통은, 아버지 앞에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데 있었다. 죄가 되신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의 죄”를 당신 안에 받아들으신 사랑 때문이었다. 성령 하느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아드님께 전하는 분이셨고, 아드님은 성령께 순응하고 아버지 하느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며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전해진 사건이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먼저 나타나시며(마르 16,9; 요한 20,11-18),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하고 전하여라.”(요한 20,17)고 이르셨다. 당신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파스카는 하느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건,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분의 형제로 변화되었다.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여 다른 사도들에게 부활을 증언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기쁨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느님

께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준다(사도 2,1-36). 강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먼저 내려오시어, 동정녀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아들이며 하느님과 사랑으로 일치한 사건이었다. 이제 그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제자들에게 발생한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시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사랑으로 일치하며 그분을 증언하는 이로 거듭났다. 성령은 하느님의 숨결,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이끄셨던 성령 하느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지셨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새롭게 일으키셨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셨다. 대사제의 종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가, 대사제와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당신을 증언하며 당신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신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이들”(사도 9,2)이었다.

2. 교회 : 하느님과 함께 걷는 ‘원-호도스’

교회는 근원적으로 ‘원-호도스’(시노두스)이다. ‘호도스’이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함께 길을 걸으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으로 탄생하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집회’를 ‘카할’이라 한다. 신약성경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 성령의 파견을 통해 ‘하느님 백성을 종말론적으로 불러 모으신 모임’을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한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를 ‘교회’라고 번역했다. 교회는 하느님과 함께 길을 걷는 신앙 공동체이다.

성경의 처음부터 하느님은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부르시는 분으로 등장한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느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다. 특히 “모세야, 모세야!”(탈출 3,4)

부르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주님께서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는 장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길이 어떠한지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는 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였다. 사람들이 늘 손질하며 기대와 꿈을 키워간 나무였다. 반면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나무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로 내려오셨는가? 척박한 광야의 떨기나무였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자신을 낮추시며 내려오시는 분, 세상의 불품없는 것을 당신의 길로 삼으시며 인간을 부르고 만나러 오시는 분이다. 모세를 통해 이집트 종살이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는 모습도 하느님의 길을 알려준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언뜻 보면 하느님께서 휘황찬란하게 등장하시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섬기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밤에 횃불을 들고 인도하는 이는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아닌가? 주님 스스로 당신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셨다. 홍해를 건널 때도 주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내어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 주님께서 종의 일을 하시며 당신 백성의 살길을 마련하셨고, 그렇게 시나이산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은 하느님 편에서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계약이고, 백성들 편에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탈출 19,8; 24,3.7)는 약속을 세 차례 발하면서 체결된 계약이었다. 계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자애롭고 너그러운 분으로서 언제나 함께 계셔 주시는 분으로 알고 고백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백성이었고, 또 그러해야 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군종과 제자들은 회심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요한복음의 첫 표징에서, 마리아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알려주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느님 백성의 대표로 등장한다. 옛 계약이 체결될 때처럼 새 계약이 체결될 때에도 백성들의 신앙과 사랑이 필수불가결하

다. 그리스도는 성찬례를 제정하시며,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르 14,24)고 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 진리 전부를 세상에 전하시는 자리,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와 함께 삼위일체의 사랑을 수용하는 새로운 계약의 인간 편 주체로 있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성령의 파견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께 충실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 성경이 증언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사도들은 교우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공동체는 기도에 전념하며 친교를 나누는데, 그 핵심과 절정은 성찬례였다. 사랑의 친교로 생활하는 이들은 자기 재산을 하느님 위에 두지 않았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사도 2,44).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사도 2,46-47). 초대 교회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가득했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얻은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다. 죄는 근원적으로 거짓이다.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하느님 자리에 놓으려는 휘브리스, 오만함이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죄 역시 거짓과 위선이었다.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했다. 베드로는 곧바로 죄를 알아보았다(사도 5,1-11 참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이는 악한 영의 작용을 곧바로 식별한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하는 사람인 줄 잘 알았다. 공동체 안에 식량 배급 문제가 생기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사도 6,2)고 상황을 진단했다. 척도는 하느님의 말씀이었다. 좋은 활동을 하면서도 하느님 말씀에

소홀할 수 있는 유혹을 알아채고 즉시 저항하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사도 6,3-4). 사도들의 제안에 공동체가 동의하였고, 그리하여 일곱 봉사자, 부제들이 탄생했다. 사도들은 스스로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의식했다. 부제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봉사활동에 전념할 사람들이었다. 서로 다른 직무 설정은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증진시키며 교회가 성장하게 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일부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이방인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한 베드로에게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사도 11,3)라고 공격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며”(1베드 3,16),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사도 11,17)라고 답변했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은 모두 잠잠해졌다. 복음화 여정에 장애가 생길 때, 교회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다. 교회 전체의 식별 과정이다.

예루살렘 사도 회의는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공동식별 과정을 보여준다. 바리사이 출신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안티오키아 교회에 와서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도 15,1)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은총보다 모세의 관습을 우위에 둔 것이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과 원로들과 함께 모였다. 오랜 논란 끝에 사도들의 주장인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사도 15,11)고 가르쳤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야고보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라.”(사도 15,19)고 당부했다. 사도들과 원로들은 안티오키아 교회에 서간을 보내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사도 15,28)고 밝혔다. 서간을 받은 안티오키아 교회는 기쁨에 가득 찼다. 사도 회의의 공동식별은 활발한 토론과 경청, 담대한 증언과 신앙고백의 과정을 밟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이루어졌다. 함께 걷는 여정, 시노두스로서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함께 걷는 교회의 여정은 역사를 통해 지속되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비롯한 제1천년기의 보편 공의회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고 심화하는 과정이었다. 공의회 concilium은 시노두스로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2천년기에 들어 그레고리오 7세 (1073-1085)는 황제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독자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교황권을 강화했고, 그 이후 1870년 제1차 바티칸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교황의 수위권이 강조되었다. 수위권은 본래 교회 일치와 구심점으로서 의의가 있었지만,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백성들의 참여를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1962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친교와 신비를 부각 시키면서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순례 여정을 걷는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 1965년 공의회 폐막 직후 주교시노드(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설립되면서 보편교회의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식별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최근의 제15차 주교시노드 정기총회는 2018년 10월 “젊은이, 신앙, 성소식별”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그만큼 청년에 관한 현재 교회의 사명이 절박하다는 말이다. 제14차 정기총회는 2015년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의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열렸다. 이 모두 한국교회와 또 부산교구와 무관하지 않다. 본당마다 청년들 보기가 어렵고, 가정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

정기총회는 2012년 “그리스도교 신앙 전달을 위한 새 복음화”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른바 수계신자들, 냉담자들, 비신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찾고자 한 것이다. 최근의 세 차례 주교시노드 이후 각기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사랑의 기쁨』 『복음의 기쁨』의 후속문서가 발표되었다. 발제자가 주임신부로 있는 본당만 보더라도, 이 세 주제는 첨예한 현실성을 갖는다. 본당 안에 청년들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설 자리가 없어졌고, 가정의 위기가 확산되어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고, 후속세대에 대한 신앙전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일학교가 유명무실하고, 냉담자 수가 수계신자 수의 배가 넘고, 냉담자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신원미상자와 행방 불명자 수가 수계신자와 냉담자 수를 합한 것의 세 배나 된다. 수계신자들의 신앙생활 역시 기쁨과 활력이 넘친다기보다 근근이 또 간신히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주교시노드를 통해 보편교회는 교회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진단하며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시노두스로서 교회는 주교시노드로 말미암아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노두스는 주교시노드보다 폭넓은 교회의 이름이고, 주교시노드 역시 보편 교회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매우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후 가톨릭교회는 스스로를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라고 의식했고, 피라미드 모양처럼 가장 아래 평신도, 그 다음 수도자, 사제, 주교, 정점인 교황의 삼각형을 형성한다고 가르쳤다. 본래 의도는 일치와 친교의 영적인 질서를 말하고 가시적인 제도와 비가시적인 은총의 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면서 교회 구성원들 사이 권력 관계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용되거나 그렇게 오해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정점에 사도단을 두셨고, 그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반석’(마태 16,18 참조)이며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힘을 ‘복돋아’ 주어야 하는(루카 22,32 참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마치 역삼각형처럼, 그

정점이 밑변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봉사자’(ministri)라고 불립니다. 이 단어의 본디 의미에 따라 그들은 모든 이 가운데 가장 작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2015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본래 직무자(ministro)는 아래에(minor) 서 있는(stare) 사람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작은이다. 교회의 모습을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려볼 때, 교회의 직무 관계는 권력 관계가 아니라 봉사 관계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서품을 통한 직무 사제직은 세례를 통한 보편 사제직(sacerdotium commune)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2-45). 주님께서는 시노두스로서 교회, 하느님과 함께 길을 걷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교회를 요청하신다. 여기에 귀 기울일 때, 자기 안위만 찾거나 정체되지 않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자기 밖으로 나가는 교회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교회를 시노두스로서 이해할 때, 그 핵심은 ‘친교’(communio)와 ‘선교’(missio)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교가 시작되었고, 우리들 편에서 하느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면서 그 친교가 이루어진다.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은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드러난다. 하느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는 가난하고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친교는 선교를 지향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라.”(마르 16,15)는 말씀은 주님과 친교를 누리는 이가 살아가는 사명(missio)을 알려준다. 그리스도교에서 사명은 나중에 부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스스로 영원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분이시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다. 사명은 곧바로 우리의 신원이다.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말씀하셨다. 파견된 이는 자신의 사명을 주님과 맺는 친교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시노두스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로 살아가고 그 친교를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살아간다.

II.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회심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호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분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길을 걷는 ‘신-호도스’(시노두스)로서 교회의 신비를 알아보았다. 이제 교회의 ‘시노달리타스’로서 특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신학위원회에 따르면, “시노달리타스(공동합의성)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의 고유한 특성’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항). 교회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창설한 시민단체도 아니고 관변단체도 아니며, 동교회나 친목 단체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드러나고 전해진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교회의 기반이며 핵심이다.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생활방식이자 활동방식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는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면서 교회가 자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국제신학위원회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역사 안에서 걸어가는 당신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하느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03항) 시노달리타스가 표현된다고 밝힌다.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야말로 교회로서 우리의 생활과 사명의 근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회의

현상황을 간략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보겠다. 이어 시노달리타스의 핵심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서, 본당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겠다.

1. 현 상황

우리 시대, 교회는 두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적인 ‘세속화’와 ‘세속주의’이다. 세속화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신앙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다. 본디 세속화는 근대 유럽에서 세상의 것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데서 시작하였다. 교회가 소유한 권력, 영토, 재산, 건물을 세상이 다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물론 교육과 의료사업 역시 여기 해당한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교육과 의료는 특권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기에 교회, 특별히 많은 수도단체는 빈민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애덕실천을 계속해 왔다. 1950년대 유럽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정부에서 교육과 의료사업을 본격적으로 관할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소유한 학교, 병원들도 국가가 관리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국가가 할 일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한다고 교회 역시 의식하기 시작했다. 건전한 세속화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본연의 일을 자각하고 다시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세속주의는 이와 질적으로 다르다. 교회를 공공영역에서 배제하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종교를 인정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근대 계몽주의 이후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속주의가 심화 되었다. 교회는 신앙과 도덕의 가르침에 따라 예언자적인 자세로 세상에 대해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세속주의는 이 자체를 거부하고 반대한다. 예를 들면, 지금도 논쟁이 거센 낙태와 동성애가 해당된다. 교회는 복음의 가르침대로 죄와 죄인을 구별한

다. 죄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되, 죄인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끌어안는 것이 교회의 태도다. 낙태나 동성애 행위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면서도, 낙태자나 동성애자는 하느님의 자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낙태를 반대하면 인권을 무시한다고,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시민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유럽에서는 허다하다. 전형적인 세속주의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세속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세속주의 물결도 강해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때까지 교회는 구호물자를 토대로 의료와 교육 등의 사회복지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적 이익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군사독재의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진작하는 데 큰 공헌도 했다. 이제 그런 사정이 급속도로 변하여,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가 시작되었다. 병원, 학교, 복지시설 운영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하여 시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직접적인 역할도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세속주의가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 되고 있다. 당장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른들도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인들도 아주 쉽게 개인주의적인 경향에 노출된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설문조사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고 대부분이 답한다. 마음의 평화가 분명 중요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힐링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가 많고, 그러다보니 자기 만족을 위한 영적 개인주의에 떨어지기 쉽다. 단체 모임이 동호회, 친목계 수준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교우들 사이 친교를 맺는다 하더라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봉사와 섬김의 정신은 약해지고, 뒷담화와 험담이 만연하고, 감정이 상하면 성사생활마저 내팽개치는 경우가 자주 생겨난다. 신자생활만 오래 했지, 신앙생활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교회 내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세속성’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신학자 앙리 드 튀박을 인용하며 자주 언급하시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원과 사명을 알지 못하거나 망각한 채 교회 안에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향을 뜻한다. 본래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복음화의 사명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꾸로 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기 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속물화하는 것이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향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침투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별 의식 없이 그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복음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은 채, 세상의 정신 그대로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자기만족,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찾기 마련이다. ‘영적 세속성’이 뜻하는 바다. 이런 사정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성직중심주의와 권위주의 역시 복음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다. 봉사하고 헌신하며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사목자가 행정가나 정치꾼, 기업가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며 거기에 자족하면 영적 세속성에 젖은 것이다. 수도자들 경우도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면 예외가 아니다. 본당에서는 제2인자,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는 중간 관리자, 직원의 역할을 하는 데 안주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다.

세속화는 교회의 외적인 상황이지만, 영적 세속성은 교회 구성원의 타락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반복하여 “영적 세속성은 안된다.”고 강조하신다. 교황님은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를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확산된 ‘신영지주의’와 ‘신펠라기우스주의’이다. 이 두 경향은 너무나 교묘하게 작용해서 신학교, 수도원, 본당을 비롯하여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신영지주의는 인간의 지식, 깨달음을 절대화한다. 깨달음과 지식이 인간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일깨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영적 스승으로 등장하며 지식을 얻도록 인도하는 역할만 하고, 깨

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깨달음을 통해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이 자유는 하느님과 이웃에서 벗어나는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유다. 여러 가지 방법의 공부와 명상을 반복하여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세상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기만의 그윽한 경지에 이른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과는 대립하는 주장이다. 신앙인은 자기 밖으로 나가는 이,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 사랑의 관계를 찾는 사람이다. 자신 안에 갇혀 하느님과 이웃과 단절된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지식이나 신념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놓고 이를 정당화한다면 실제적으로 신영지주의의 이단을 사는 것이다.

신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곧 인간의 힘을 절대화한다. 신앙생활의 원천이 은총에 있다는 사실은 도외시 한 채, 그저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업적과 성과를 거두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양 착각하도록 부추긴다. 여기에 잠식당하면, 그리스도인은 활동가, 사업가, 운동가가 될 뿐이다. 본당 안에서 직책을 맡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들끼리 마음이 상하면 곧바로 냉담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신의 역할이나 직책을 신앙보다 우선시 한 것이고, 은총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피폐해지고 소진한 것이다. 이 또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가리지 않는다. 영혼이 피폐한 수도자는 영적 모성을 잃는다. 차갑고 냉랭하고 고압적으로 교우들을 대하면서 그게 수도자의 역할이라 착각한다. 공감하고 돌보는 마음, 공동체를 끌어안는 마음 대신 눈앞에 닥친 일 처리에 급급한 경우다. 성직자들이 헤게머니를 장악하려 세력을 형성하고, 회사 사장님처럼 가시적 성과만 거두려 하고, 비판과 비난만 하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양 착각한다면, 실제적으로 신펠라기우스주의를 사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안의 영적 세속성으로 말미암아 교회 구성원들은 날마다 피곤하다. 가뜩이나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별 다른 게 없으니 여전히 생각은 복잡하고, 마음은 어둡고, 얼굴은 굳어있다. 자기 상태와 공동체 상태를 직면하고 싶지도 않고, 직면한다 해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고,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다. 여기에 뒷담화와 알콜의 위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신영세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금방 발길을 되돌리고, 감각 있는 청년들은 고인물을 굳이 가까이 할 필요를 못 느낀다. 교회 공동체가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니 예비자들도 줄어든다. 세속화와 세속주의는 교회가 처한 외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영적 세속성은 교회 구성원들의 내적인 타락이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자기 힘만 믿고 살려하니 스스로도 힘들고 이웃까지도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 아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기쁨과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사도들이 먼저 그러했다. 가족과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체포와 수난, 죽음을 겪으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실의와 절망에 휩싸였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관료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속물적인 생활로 눈이 어두워진 지금의 상황과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실의와 좌절에 빠졌던 바로 그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기쁨과 생명을 얻었고, 진리를 선포하는 길을 나섰다.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걸어야 한다. 이 길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회심의 여정”이라 하신다.

2. 시노달리타스의 여정

“시노달리타스는 … 주 예수님과 일치하여 그분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삶과 복음화 사명을 고무하려는 것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03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이는 삶이 바뀐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그저 눈물만 흘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기쁨을 얻었다. 실의와 두려움으로 숨어 지내던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쉬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며 새로 태어나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하였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로올라의 이냐시오도 옛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았다. 주 예수님과 일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는 삶이 바뀐다. 기쁨과 사랑과 평화로 충만해지고, 부활하신 분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들 편에서도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 시노달리타스는 현실이 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동반하시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전해 주시는 그 정점은 성찬례이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주시는 사랑, 아드님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시는 사랑, 성령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전부를 전해주시는 사랑이 성체 성사 안에서 항상 새롭게 발생한다. 우리들 편에서도 성체성사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느님께 바쳐드릴 수 있다. 성체성사는, 하느님께서 사랑을 전하시고 인간 편에서 사랑의 응답을 드리는 사랑의 성사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힘의 원천이다. 성찬례 안에서 시노달리타스가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는 생동감이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참례하는 미사는 무척이나 경건하다. 주님께 희망을 두며 여생을 사는 이들은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드리는 게 무엇인지 안다. 평생을 지극한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이제 주름살 가득 패인 얼굴로 미사참례 하시는 할머니들의 순박하고 진지한 모습에 마음이 뭉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밝은 표정

으로 전례의 신비 안에 젖어드는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의 얼굴은 굳어있고 찌들어 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큰 위안과 평화를 얻을 것이다. 사실 주님과 맺는 친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다름 아닌 죄이다. 죄를 짓는 이는 나, 이웃, 세상이다. 내가 죄를 짓고, 이웃과 세상이 또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진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감정이 뒤틀리고 의지가 약해지고 생각이 비틀어진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다시 죄를 짓고, 그 결과는 가중되는 고통이다. 악순환의 반복,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미사의 시작 참회예식이 꼭 필요한 까닭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은 구원의 두 가지 요소이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고해성사는 죄의 용서를 받는 참회의 성사다.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으니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고해성사를 받는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겸손하게 수용하며 해방하는 은총의 힘을 경험한다. 죄에서 벗어나 일상을 더욱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런데 여전히 고해성사는 위기에 처해 있는 듯하다. 미사 30분 전에 미리 고해실에 앉아있어도 고해성사를 받으러 오는 이가 적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해치우려는 경향도 남아있다.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기 위해 고해성사의 은총은 필수불가결하다. 우리들 마음과 공동체가 정화되면서 주님과 또 이웃과 참다운 친교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기억이 정화되고 지성이 맑아지고 의지가 선해진다. 자신과 이웃과 세상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다. ‘식별’의 내적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식별은 하느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식별 없이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활동주의의 유혹에 빠진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인데, 식별하지 않고 활동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자기만족을 구하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식별은 유아기적인 자기 분석이나 개인주의적 자기 성찰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참으로 벗어나 하느님 신비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형제자매의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75항). 식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과 사랑으로 일치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 매일의 독서와 복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마리아는 식별하는 이의 모범이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울려 퍼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느님과 사랑으로 일치하고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식별과 실천의 본보기이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일상과 인생을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 놓는 것이다.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당신 안에 수용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슬픔, 죄와 죽음 모두가 말씀을 듣는 길이 되었다. 자신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식별하는 사람이다. 이 길은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지혜롭게 걸어가고 있다.

본당에 신앙증진대학을 개설하면서 큰 모험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신앙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분들이 훨씬 더 진지하

고 열성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한평생을 신앙의 빛으로 비추어보려는 자세가 돋보였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당신을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마태 11,25 참조), 식별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더 뛰어난 지력이나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70항)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그대로였다.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식별 과정은 학벌이나 지성, 사회적 위치에 달려있지 않고,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리는 자세에 달려있다. 이 사실은 공동식별의 과정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신앙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탄생했고, 말씀을 함께 듣고 실천하며 성장한다.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찾는 과정은 세례성사로 선사 받은 신앙 감각(sensus fidei)으로 가능하다. 오감을 통해 외부세계를 인지하듯, 이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신앙 감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 운동이나 언어 감각이 계속 갈고 닦아야 발전하듯,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신앙 감각 역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발전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둔감해지고 퇴보한다. 세상살이에 마음을 뺏긴 채 늘 분주하고 바빠 하느님께 정성을 내어드리는 데 소홀하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자기 편리나 세상 논리대로 교회의 일을 결정하려 든다. 성직자, 수도자는 물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 평신도 협의회 위원들과 각 단체장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의 사정만 앞세우고, 목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느님의 뜻을 함께 찾는 길을 막아서게 된다.

공동식별을 위해서는 이웃의 말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사실 이웃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하느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표는 이웃의 말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데 나타난다. 신앙공동체에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많다. 평신도 협의회를 비롯, 제 단체의 모임은 하느님

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찾아가면서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날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이웃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의 상황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공동식별하기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한국의 문화 전통은 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의 일에 관심을 쏟으며 금방 ‘우리가 남이가’를 외친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서로를 필요 이상 의식하고, 눈치 보고, 눈치 주며 획일주의에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회 안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평소에는 눈치 보느라 침묵하고, 모임에서는 방관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게 습관이 되면 큰 문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대로라면 사탄의 농간에 떨어지는 일이다. 회의 자리에서도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가, 자기 영역이 침해당한다 싶으면 화를 내고 인신공격하는 일이 종종 생겨난다. 그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인 줄 착각하지만, 사실 함께 걷는 공동체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공동식별을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꾸준히 덕을 닦아 나가야하고, 대화하기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참된 대화는 영성적 만남으로서, 사랑, 존중, 신뢰, 신중함 등과 같은 몇몇 특별한 자세들을 필요로 하며”(『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11항),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공동의 선과 이익을 첫자리에” 두면서 이루어진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12항). 그리스도인이 공동식별의 방법을 꾸준히 익히고 대화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그리스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도 훨씬 발전할 것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시노달리타스를 “공동합의성”이라고 번역한다. 교회 안의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이 시노달리타스의 중요한 실천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공동합의의 본보기는 주교시노드의 원리, 곧 한 사람(uno)-몇몇 사람(alcuni)-모든 사람(tutti)의 역동적인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 참여하는 몇몇 주교들(alcuni)은 평신도와 수도자, 사제단 등 모든 사람들(tutti)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 ‘몇몇 사람’의 발언은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아야 하고, 모든 이의 생각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

황(unno) 역시 몇몇 사람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경청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합의를 위한 체계는 교구와 본당 안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렇게 말한다. “주교들은 사목 활동의 필요와 교구의 선익과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사제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상의하며 그들과 함께 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실천하려면 …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평의회 또는 원로원을 설치하여야 한다”(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 PO, 7항). 더 나아가 평신도들과 수도자들의 참여를 고무한다. “각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평의회는 사목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진다”(주교들의 사목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CD 27항)

본당 안에서 공동합의를 위한 대표적 기구는 평신도들이 사목 계획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평신도 협의회이다. “평신도들은 그들이 갖춘 지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밝힐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까지도 지닌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LG 37항). 사제들은 “평신도들의 말을 기꺼이 듣고, 그들의 소망을 형제애로 숙고하며, 인간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여야 한다”(PO 9항). 그러므로 “평신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공동합의 구조들의 틀 안에서 식별 절차를 시작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교회의 생활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73항). 사제들은 먼저 묻고 경청하고, 평신도들은 책임감 있게 적극 참여하면서 본당의 의사소통과 공동합의가 가능한 것이다. 국제신학위원회는 평신도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양성 부족과 시스템 결여, 성직중심주의이다. “양성 부족과 평신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장애물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교회 생활의 주변부에 묶어 두려는 성직 중심적 사고

방식에 따른 장애물들은 모두 극복되어야 한다”(『교회의 생활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73항)

성직중심주의는 성직자가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성직자들 편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며 자기편리를 추구하는 데서 생기는 죄악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직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평신도의 미숙함이 항상 동반한다. 성직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공동합의의 정신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성직자의 쇄신은 물론 평신도의 올바른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 공부와 신앙 교육, 교회 가르침 학습을 비롯하여, 그리스도교의 영적인 체험과 애덕 실천을 심화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논리로 교회의 일을 생각하고, 무속의 정신에 따라 기도하고, 주관적인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사실, 반 성직주의는 성직자들의 죄과와 세속주의에 원인이 있지만, 평신도의 양성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 반성직주의 운동은 평신도들이 배타적으로 “우리가 교회다”라고 주장하며 그릇된 주인 의식을 표방하고, 성직자들의 정당한 권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파괴하려 한다. 사회법적인 사고와 대중영합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의 합당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데올로기이다.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조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주님을 향한 회심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나오는 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은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분,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의 용서와 평화, 기쁨과 생명이 선사되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 선사하시는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일치하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시노달리타스의 근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일을 이어가는 데 있다. 시노달리타스는,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를 촉구한다. 그리스도교에서 영성은 물질세계와 분리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성생활이다. 성령 하느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죄에서 일어나게 하고, 주님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하고, 하느님 사랑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가 이웃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다. 불안과 조바심에 시달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활력이 필요한 시기다. 시노달리타스는 이웃과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가리켜 준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피해한 이들을, 설 자리 없는 청년들을, 신음하는 자연생태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알려준다. 이 모습을 되찾아야 교회가, 본당이 새로워지고 젊어질 수 있다. 시노달리타스는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깨어 의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찾아 실천해 나가면 지금 다시 회복하고 심화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본당에 선교분과가 주축이 되어 가두선교를 자발적으로 매주 실시한다. 위협하거나 회유하지 않고, 허리 숙여 거리의 오물을 줍고 청소하며 천주교회를 알린다. 평소에는 교회에 관심 없던 이들도 이때만큼은 인사를 받아주며 호감을 드러낸다. 퇴약별을 맞으며 동네를 도는 일이 힘들 텐데도, 참가한 이들은 환히 웃는다. 시노달리타스의 실제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며 선교방식을 찾고, 함께 식별한 것을 함께 실천한 것이다. 구역분과가 주축이 되어서는 냉담자 권면운동을 이어간다. 대부분 안 좋은 일로 냉담하는 분들이어서 권면하기가 쉽지 않다. 귀찮아하며 거절하고 거부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러 나간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중에 마음이 움직여 돌아와 고해성사를 받고 주일미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교우분들이 반가워하고 기뻐한다. “신앙생활 다시 잘하

겠습니다.”는 말을 들으면 사목자로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교육분과도 많은 준비를 하여 신앙증진대학이 개설되었다. 어르신들이 하느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신앙의 활력은 어르신들이 먼저 느끼고 이웃에게도 먼저 전해준다. 말씀의 힘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는 신앙의 기쁨을 선사 받는다. 청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당을 멀리한다. 찾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고, 만나지 않고서는 물어보거나 이야기 나누지도 못한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겨우 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데 훨씬 더 진솔하고 진실하다. 청년성서모임이 시작되었고 청년미사가 재개되었다. 청년들만의 진지함과 아름다움이 뿜어 나오는 자리, 어른들의 마음도 더욱 부드러워졌다. 와해되다시피 했던 주일학교교사회도 다시 일어났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사랑으로 응답해 주니, 젊은 교사들의 표정이 밝고 환해졌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도 기뻐한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함께 걷는 교회의 시노달리타스를 이렇게 느끼고 경험한다. 훨씬 더 선명한 경험은 성찬례에서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정성을 다해 미사 참례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처럼 정성스럽게 미사를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시간, 시노달리타스는 이미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생생하고 항구적인 체험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원천이고, 새로운 삶의 누룩이며, 선교 임무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도전의 발판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21항).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또 본당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신앙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여러분에게 생기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 1항).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우리를 격려하며 복돋아 주신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과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본래 특성이다. 영적 세속성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교회의 생활방식이며 활동방식이다. 주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가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 차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참고 문헌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La sinodalità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Città del Vaticano 2018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9)

I. 교황 프란치스코의 문헌

프란치스코, 회칙. 『신앙의 빛』,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3
프란치스코,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프란치스코, 칙서. 『자비의 얼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
프란치스코,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6
프란치스코, 교황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프란치스코, 교황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9

II.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대한 신학적 해설

Antonio Spadaro, “La riforma della chiesa secondo Francesco. Le radici ignaziane”, in A. Spadaro-C.M Galli, edd., *La riforma e le riforme nella chiesa*, Brescia 2016, 19-36.

Aristide Fumagall, *Camminare nell'amore. La teologia morale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Carlos María Galli, *Cristo, Maria, la Chiesa e i popoli. La mariologia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Juan Carlos Scannone, *Il Vangelo della Misericordia nello spirito di discernimento. L'etica sociale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Jürgen Werbick, *La debolezza di Dio per l'uomo. La visione di Dio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Lucio Casula, *Volti, gesti e luoghi. La cristologia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Luigi Guccini, *Papa Francesco e la mondanità spirituale*, Bologna 2016.

Marinella Perroni, *Kerigma e profezia. L'ermeneutica biblica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Marko Ivan Rupnik, *Secondo lo Spirito, La teologia spirituale in cammino con la Chiesa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Peter Hünermann, *Uomini secondo Cristo oggi. L'antropologia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Piero Coda, *"La Chiesa è il Vangelo". Alle sorgenti della teologia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Roberto Repole, *Il sogno di una Chiesa evangelica. L'ecclesiologia di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2017

Walter Kasper, *Papa Francesco. La rivoluzione della tenerezza e dell'amore*, Brescia 2015

III.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신학적 성찰

Arcidiocesi di Milano, *La sinodalità nella Chiesa. Un approccio multidisciplinare*, Milano 2018

Dario Vitali, *Verso la sinodalità*, Magnano 2014

Dario Vitali, *"Un popolo in cammino verso Dio"*, Cinisello Balsamo 2018

Giordano Frosini, *Una Chiesa di tutti*, Bologna 2014

Michele Giulio Masciarelli, *Le radici del Concilio. Per una teologia della sinodalità*, Bologna 2018

Nikola Eterović, *Sinodalità. Nuovo dinamismo*, Città del Vaticano 2017

최현순,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 : ‘백성을 이루어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평사연 포럼 2019

IV. 세속화와 세속주의에 대한 신학

Anton W.J. Houtepen, *Dio, una domanda aperta. Pensare Dio nell'era della dimenticanza di Dio*, Brescia 2001

Karl Rahner, “Theologische Reflexionen zum Problem der Säkularisation”, *Schriften zur Theologie*,

VIII, Einsiedeln-Zürich-Köln 1967, 637-666

Karl Rahner, “Theologische Überlegungen zu Säkularisation und Atheismus”, *Schriften zur Theologie*, IX, Einsiedeln-Zürich-Köln 1970, 177-196.

3. 함께하는 찬양 - 최현숙(아가다)

어머니

최현숙 아가다 작사
최현숙 아가다 작곡

1. 먼 동이 트이듯 나타나신 달과 같이 아름답 - 답고 해주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 - 뻘하 - 소서 주

와 같이 빛나는 저 여인은 저 - 여인은 누구실까 제 영혼이 주님을
함께 계시니 복되 - 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주님의 종이니 그

찬미하며 내 구세주 생 - 각에 기쁨이 넘치네 썸
대로 제게 이루어지 - 소서 그 응락의 말씀이

물 - 처럼 복되다 아름다운 성모 향기로 운꽃잎
사람되어 당신 안에 자라시도다 초록잎 - 새워

에 부딪는 햇살과 산들 바람에 실려 온 당신
에 내리는 빗물은 세상 죄아파하시는 당신

의 숨 - 결 천주의 성모님 저 회위하여 사랑하는 아드님
의 눈 - 물 저 회위하여 사람 되신 주의 사랑받는 어 - 머

께 그 인내 그 믿음 그 겸손까지 청하여 빌어 주옵소서
니 그 은유 그 사랑 그 순종까지 청하여 빌어 주옵소서

마니피캣

최현숙 아가다 작사
최현숙 아가다 작곡

$E\flat$ $Dm7(b5)$ $E\flat$ Cm $Fm(add2)$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구원자 하나님 생각
 주님은 권세를 물리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 높이가
 $B\flat7$ $E\flat$ Cm $Fm(add2)$
 에 기쁨 넘쳐 이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로
 시며 주린이 운헤로 배부라시고 부요한이 돌려보내
 $B\flat7$ $E\flat$ $E\flat+$ $Fm(add2)$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주님께
 $B\flat7$ $E\flat$ $Gm7(b5)$ $Fm7$
 서 비천한 내 처지를 돌보아 주셨음
 $B\flat7$ $E\flat$ $E\flat+$ Cm $Fm7$
 니 선조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잊지 않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잊지 않으
 $B\flat7$ $B\flat sus4$ $A\flat$ $E\flat$ $A\flat$ B $E\flat$
 셧음으로 다 영원토록 베푸시리 그 자비를
 $A\flat$ $E\flat$ $A\flat$ B $E\flat6$ $E\flat$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랑하려고든

성 아우구스티노 글
최현숙 아가다 작곡

Em 3 3 3 B7 3 Em 3

그대는 단 한 가지 짝막한 계명을 - 받았습 니 다 - 사랑하

Am7 D7 3 G7 3 Cdim 3 Em 3

십 시 오 그리고 그대 원 하는 대로 하 십 시 오 침묵하

Am7 3 D7 3 G7 Ddim 3 B7 3 Cdim 3

려 거 든 - - 사랑 으 로 말 을 하 려 거 든 - 사랑 으

사랑 으 로 침묵 하 십 시 오 사랑 으 로

Em 3 Am7 3 D7 3 G7 3 Gdim 3

로 바로 잡 아 주 려 하 거 든 용 서 하 려 하 거 든 사랑 으

말 하 십 시 오

Am⁷ F^{#7} B⁷ Em Am⁷

로 - - 마음깊은곳에 사랑의 뿌리를 -

D⁷ Cdim Em⁷ E⁷ Ddim E⁷ Am⁷ Cdim

내리십시오 이 뿌리에서는 선한것 말고는 - 그

B⁷ Cdim Em

무엇도 - 나올수없습니다

D.C.

Em Am⁷ D⁷ Cdim

마음깊은곳에 사랑의 뿌리를 - 내리십시오

Em⁷ E⁷ Ddim³ E⁷ Am⁷ Cdim

오 이 뿌 리 에 서 는 선 한 것 말 고 는 - 그

B⁷ Cdim Em E⁷ Ddim E⁷

무 엇 도 - 나 올 수 없 습 니 다 이 뿌 리 에 서 는 선 한 것

Am⁷ Cdim B⁷ Cdim Em

말 고 는 - 그 무 엇 도 - 나 올 수 없 습 니 다

사 랑 하

Am⁷ D⁷ G⁷ rit. Cdim Em

십 시 오 그 리 고 그 대 원 하 는 대 로 하 십 시 오

4. 약정 토론

1) 약정 토론자 - 최성욱(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교황 프란치스코의 시노달리타스 가르침 : 복음의 기쁨을 살기 위하여”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시노달리타스(라틴어 Synodalitas, 영어 Synodality)는 광범위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 제9대 위원으로 문헌 작성과 토론 작업에 참여했던 박준양 신부가 문헌에 대한 해설에서 언급하듯,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가르침은 “현재 가톨릭 신학계의 최대 현안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동적 토론의 결실”입니다.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표현 안에는 순례하는 교회가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Ecclesia peregrinas natura sua missionaria est.)”이며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²⁾ 이런 의미를 고려할 때, 평신도 아카데미에서 선택한 공동합의성이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 적절한 선택이며, 실제 사목 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주교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 식별’과 ‘공동 참여’로 부름 받은 하느님 백성 모두가 복음 선포의 주체임을 알려주는 공동합의성은 “제3천년기 교회로부터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³⁾

발제자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시노달리타스 가르침: 복음의 기

1) 박준양, “특별기고: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가 발표한 문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해설”, 「가톨릭평화신문」 1465호(2018.5.20).

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53항.

3) AAS 107(2015), 1139.

쁨을 살기 위하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에 자주 등장하는 ‘기쁨’이라는 모티브를 ‘공동합의성’과 연결시킴으로써, 신앙의 기쁨을 살아내는 하느님 백성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013년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6년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8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ultate) 등,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신앙의 기쁨’이야말로 함께 증언하며 함께 살아야 할 하느님 백성의 목표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문헌이 언급하듯, 생생하고 항구적인 시노달리타스의 체험은 ”하느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⁴⁾

발제문은 먼저 ‘호도스’와 ‘선-호도스’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길’(hodos)이라고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할’(선-호도스) 교회 사명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은 우리도 그분의 길을 함께 걷으며 ‘친교’(communio)와 ‘선교’(missio)의 삶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자고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교회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하고 전하여라.”(요한 20,17)는 선교 사명을 실천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의 삶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본 발제문은 성경과 교회사 안에 발견되는 공동식별과 공동합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다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언급한 아름다운 비유 하나를 소개합니다. 직무자(ministro)란 아래에(minor)에 서있는(stare) 자이기에, 역피라미드 모양의 밑변 쪽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노두스로서 교회의 직무자들은 섬김을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라고 부름 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21항.

“시노달리타스(공동합의성)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의 고유한 특성”입니다.⁵⁾ 이 단어는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과 선교의 방향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최현순 교수가 공동합의성을 설명하면서 신학적 전제로 삼았던 세 가지가 ‘하느님 백성’, ‘친교’, 그리고 ‘거룩함’이었다면,⁶⁾ 본 발제문은 세속화와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영적 세속성은 안 된다.”고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공동체 안에 ‘신영지주의’와 ‘신펠라기우스주의’ 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 지식을 절대화하는 현상을 뜻하고, 후자는 인간 의지를 절대화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적 세속성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실존방식인 ‘친교’를 방해할 뿐 아니라, 모든 이 안에 깃든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발제문은 실의에 빠진 신앙 공동체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회심의 여정”을 통해 주님을 만나 뵈고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길은 ‘성찬례’ 참여와 ‘고해성사’,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제문은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활용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느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서는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평을 마치면서 훌륭한 발표문을 써주신 발제자에게 직무 사제직과 연관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시노달리타스로서 교회는 ‘하느님 백성’으로 교회를 이해

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항.

6) 최현순,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 ”백성을 이루어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한국 평협 상임위원회 연수(2019.7).

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이라는 표현을 ‘평신도’와 같은 표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의회 신학위원회에서도 하느님 백성이라는 단어가 주교님들과 신부들, 그리고 교우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후에, ‘교계제도’보다 ‘하느님 백성’을 먼저 다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본당 신부에 관한 것입니다. 본당 신부가 사목활동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동료 사제, 수도자, 교우, 신학생) 안에서, 자신도 ‘하느님 백성’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본당 신부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발제문에 표현된 ‘신영지주의’와 ‘신펠라기우스주의’ 혹은 교회 내 지나친 인본주의적 현상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전망과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시노달리타스로서 교회는 ‘친교’의 특성을 지니고, 하느님 백성은 모두 ‘거룩한 성화의 소명’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보편 사제직을 통해 교회 활동에 동참하는 평신도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직무 사제직을 통해 봉사하는 성직자들에게 고유한 ‘전문성’(professionalism)과 건강한 영적인 권위(spiritual power)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윤리신학의 한 지류로서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하느님 백성’이지만, 동시에 ‘특수한 소명’으로 부름 받은 성직자들이 하느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 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기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특수 역량’이 있다면 무엇인지, 신학교 사제양성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약정 토론자 - 김경희 마리 미카엘라 수녀

-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

“함께 대화하고 경청하고 식별하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위하여”

아카데미 주제인 ‘함께 걸어가는 교회-공동합의성(Synodalitas)’에 대한 개념은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되고 참여”(『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7항 참조)하며 교회 안의 모든 이가 주체임을 표현합니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55항). 이 개념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은 공동합의성이 세례 받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능동적 참여’에 관계되는 ‘신앙 감각’의 행사라는 점과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한 친교’의 자리라는 점(『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9항 참조),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교계제도 안에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목자들의 사목적 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8-69항 참조). 발제자이신 노우재 신부님은 공동합의성과 그 신학 안에 포함된 하느님 백성의 능동적 참여, 함께 걸어가는 친교와 기쁨, 그리고 공동체의 식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여정에서 공동합의성의 삶의 방식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친교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교회의 모범적인 사목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은 자녀로서 같은 품위를 지니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40항). 교회가 사명을 위해 나아갈 길에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공동선을 위해 책임을 가지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베풀어주신 은사들로 능동적 주체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55항 참조). 세

례 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도유에 의해 믿음에서 오류가 없는 신앙의 본능, 곧 신앙 감각을 통해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식별하도록 인도됩니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56항 참조). 함께 걸어가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공동합의성에 중요한 참여와 역할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사목적 결정을 위해 식별과 자문과 협력의 공동 작업을 통한 하느님 뜻에 더 부합한 사목적 결정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7-69항 참조). 신부님께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또는 본당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을 더 폭넓고 주의 깊게 경청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들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평신도 편에서 그리고 사목자 편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친교 안에서 함께 걸어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세계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에서 “지구를 위해 예언적 희망의 씨를 심는 이들”이라는 주제로 총회가 있었습니다. “희망의 해”를 살고 있는 부산교구의 사목 방향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수도생활의 현실태에 대해 숙고하고 본래 지닌 정체성과 사명, 은사를 인식하며 미래의 씨앗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깨달아가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신부님의 발제문에도 교회의 현실태와 모든 하느님 백성들의 공동합의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회심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에 언급된 갖가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숙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부님께서 언급하신 수도자에 대한 내용들, ‘영혼이 피폐한 수도자’를 언급하시면서 영적모성을 잃고 차갑고 냉랭하고 고압적으로 교우들을 대하면서 그것이 수도자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것, 본당에서는 2인자,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는 준공무원, 중간 관리자, 직원의 역할

에만 안주하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영적 세속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따뜻한 모성으로 공감하고 돌보며, 그러면서도 말씀과 은사 안에서 자신의 예언적 소명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수도자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위에 언급한 수도자의 영적 세속성들도 사도직 안에서 개인 영성 생활 안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부님께 질문하고 싶은 바는 그렇다면 공동합의적 공동체를 살아가려는 교회와 본당 안에서 여성 수도자들의 참여와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당에서 2인자로 사는 수녀들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실상 사목회의에서 소외되는 수녀들의 모습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자들이 없는 본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새 신자들이나 어린이, 젊은이들은 수도자들을 본 적이 없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당 안에서 수도자들의 부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도자들이 공동합의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식별에 대해 언급한 신부님의 발제문을 통해 대화와 경청의 중요성과 그 실행 방식에 아직 미숙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양성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단지 교회 신자들만이 아니라 수도공동체의 일원들도 아직 대화와 경청, 소통과 공동식별에 대한 자질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국제 신심 단체에서 일하면서 다른 나라의 많은 평신도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바는 그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잘 양성된 리더십들이 그 나라의 교회를 이끌고 있었고 이 리더십들은 교계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 상호존중의 문화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사명을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기쁨에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능동적 주체가 되고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공동협약과 공동식별을 거친 사목자의 결정에 대해 공동책임을 질 수 있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담자 문제, 교회 안 청년들의 부재, 교리교육의 비전문성, 성소

계발, 전례와 신심 생활 등 다방면에서 공동책임이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올바른 대화를 향한 많은 조언 중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 고문으로 활동해온 다나 오어수토 교수(Prof. Danna Orsuto)의 제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명료성입니다.

자신의 신분, 역할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자신이나 자신의 생활방식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관대함을 요구합니다.

셋째는 신뢰 혹은 확신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뿐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선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특성은 신중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말 뒤에 숨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우리가 할 대답을 궁리하기 때문에 잘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가지 대화의 특성을 이해할 때 함께 대화하고 경청하고 식별하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3) 약정 토론자 - 김종대(가롤로 보로메오, 망미성당)

- 부산지역 평신도대표 -

“평신도가 바라보는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제언(요약)”

본 발제문에서는 주제를 ‘교황 프란치스코의 시노달리타스의 가르침 ; 복음의 기쁨을 살기 위하여’라고 이름하고, 특별히 본당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안에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시스템, 교육이나 활동 등 조직 구성원들이 사랑의 일치와 친교를 위한 실천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은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부산교구 안에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공동합의성(共同合意性) 실현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구 및 본당 차원, 주교님과 사제,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하는 사목위원과 평신도로 나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뒷담화로 이야기하던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합의성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이론은 발제문과 맥을 같이하기에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 교구 및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본당의 사목 협조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를 위한 ‘**평신도사목(활동)연구소(가칭)의 설치**. 둘째, 직책별 제 임무와 역할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평신도 사목위원들의 현실적인 직무 역할 연수 실시**. 셋째, 단순히 교구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조적 기구가 아닌 평신도 사목의 구심점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협의체로서의 기능 수행 가능한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기능 제고**.

넷째, 교구 및 본당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 사목 활동에 대하여 중점 관심사항에 대한 사목 내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목 활동에 대한 기록 유지로 역사적인 사실의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하듯 사제의 책임 있는 사목을 위해 **사제들의 '사목 실명제'**를 통해 평가와 다각도의 기록유지와 평가시스템을 갖추기를 제안합니다.

나) 사제들의 모습 - 본당 차원에서

본당 차원에서 바라본 사제들의 모습 중에서 공동합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왕적인 사제 중심주의 문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본당에 부임한 신부들은 대체로 3~4년의 사목 기간 동안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듯한 고압적 사목 행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다음 신부가 오면 또다시 새로운 왕국 건설이라는 상황이 반복될 때 평신도 신자들은 상실감과 권태감에 빠집니다. 또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이 됩니다. 이런 사제 중심의 사목은 평신도들에게 의존성을 높게 하고, 평신도들이 본당에서의 활동 내지 봉사직 수행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일방적인 재정 운용의 문제**입니다. 교회 재정의 기초와 원천은 교구나 본당의 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과부의 헌금과 같은 평신도들의 미사 봉헌금과 교무금, 미사예물과 기부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목활동(시설 공사나 교육 및 행사 등)에 있어서 공동합의 없이 사제의 일방적인 지시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는 예산 책정 때나 집행할 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당 내에 사안별로 다수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가칭 본당 재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사안별로 합의하여 결정한 '재정 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제들의 모습에 대한 자기반성**을 요청합니다. 평신도들이 사제들에게서 느끼는 감성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위는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반말 투

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쉽게 반말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반만 배운 말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하는 사제들의 상식적인 행동과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서로가 섬김의 자세와 거룩함을 향한 예수님을 닮은 맞춤형 시선이 필요합니다.

다) 깨어있는 평신도 의식의 필요 - 평신도 차원에서

목자에게서든 신자에게서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게으름과 무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 또는 학문적 영역에서나 활동에서나 평신도의 준비상태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면 그 부족함의 모든 책임은 평신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와 신자들은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이고, 각자 자기 몫이 있으며 그 몫에는 다른 쪽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발성과 책임감 있는 평신도의 모습**입니다.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나 백서를 쓴 황사영 등 많은 평신도 성인과 순교자를 기억한다면 평신도들의 로봇화 내지 에스맨의 태도와 자세가 지속되는 현 상태를 방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부님이 하라고 하니 한다.’는 식은 사명감에 의한 자발성과 책임감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둘째, **자기 역할에 대한 충실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평신도들이 맡고 있는 분과별, 직책별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편적인 매뉴얼에 따른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구나 본당의 사목지침과 현실적인 데이터와 실적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접근하면서 수행해 나간 뒤에 평가 기록과 존안을 통해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분과나 단체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로 역할하고 있으며, 전체가 어울려 공동체가 된다는 폭넓은 시선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평신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당 내에서 사목위원으로나 관리자로서의 자기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사제에 대한 의존

과 단순 평가(칭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실천하거나 수행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집중되어 지켜가면서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상 배치나 신자들 친교 행사 때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조차 스스로 협의해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임신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사제를 관리장으로 만드는 처사입니다. 본당 사제가 관리자가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예수님 닮은 사목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뒤통수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공동합의성의 정신으로 한다면 뒷말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서 실현시키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부르심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 경청과 소통을 통한 공동합의적 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섬김과 낮춤이 드러날 때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 질 것입니다. 성당에 나오는 것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며, 위로 받아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기쁘게 살아가며 행복하여라(마태 5.12)를 외치며 선교의 열정을 일으키고 참 행복을 살고 싶습니다.

질문 1) ‘가칭 평신도사목(활동)연구소’의 설치로 사제와 평신도가 공동 합의된 사목활동 매뉴얼이 만들어져 본당 사목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본당 차원에서 바라본 사제들의 모습이 교황님의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약정 토론자의 발표문 원문은 평신도협의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4) 약정 토론자 - 이종열(가밀로, 옥동성당)

- 울산지역 평신도대표 -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Concilium Vaticanum Secundum, 1962-1965)의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이기도 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공동합의성)라는 용어 설명을 시작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고, 특히 본당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 노우재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 신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동합의성(synodalitas)’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실천되었던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며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서로를 존중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공동합의성의 원리는 보편교회와 각 지역교회, 본당과 기관, 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구성원의 실존적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힘으로 이뤄지는 하느님 백성 모두의 성찰과 식별,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교회의 현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공의회는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평신도 신원을 명확히 했으며, 평신도에게도 사도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공의회 이후 특히 최근 가톨릭교회는 ‘함께 가는 길’을 그 핵심적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발제문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젊어지기 위해서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합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구나 본당에서 공동합의에 의한 교회 운영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핵심인 공동합의성(synodalitas)은 평신도를 교회 운영에 더 많이 참여시켜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구장 중심 교회구조나 교황 수위권 등을 중시하는 교회법을 그대로 두고서 교회 운영에 평신도 참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할는지요? 현실적으로 본당 사목평의회 의 역할을 보면 평신도는 ‘건의’하고 주임사제를 ‘보필’하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공동합의성 실현에 의한 교회 운영 이행 여부는 사제 직을 가진 신부님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신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가 작년(2018년 10월~11월)에 가족과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 생장 피드포르에서 출발하여 스페인 산티아고 대성당까지의 800km를 순례하면서 숭한 성당과 유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례 중 마을의 성당을 찾아 미사참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순례길 마을에 있는 성당의 규모는 크지만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의 수는 몇 명 되지 않았으며 그마저 나이 많은 신자들과 순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제 역시 한 분이 몇 개의 성당 미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당을 아예 폐쇄해 버렸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도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매우 빠르게 변해 갑니다. 사람들은 손바닥 안에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시대의 모습과 기준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머물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교회도 어려워질 것이고 신

자들은 계속 떠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특성상 하느님 백성인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공동합의성의 실현으로 교회를 쇄신하고 떠나는 신자들의 발길을 늦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 교회의 주인은 평신도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유대 관계가 원만하여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을 영입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사의 위협을 마다치 않았고, 또한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목하다가 이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 관계는 세월이 지나면서 평신도의 능동적 활동은 점차 줄어들고, 성직자가 명령하고 평신도는 따르는 성직자 중심 교회 구조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직자 중심으로 권한과 역할이 편중된 교회 구조를 재편하여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목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무 사제직과 교도권을 수행하고, 평신도들은 보편 사도직, 예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평신도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주체적으로 소명을 실천하고 성령에 의한 성찰과 식별, 판단을 중시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 평신도들의 내·외적 모습을 돌아볼 때 평신도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주체적으로 소명을 실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평신도들이 평신도 사도직을 능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과 그들 스스로 표현할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어떻게 서로 연대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하고 이 평신도 아카데미를 통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예언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

자유토론

V

총평 및 마침기도

1. 총평 - 총대리 권지호(프란치스코) 신부

2. 마침기도 및 강복 - 교구장 손삼석(요셉) 주교

[별첨 1] 토론 질의서

토 론 질 의 서			
소속(본당)		성명(세례명)	
질 의 내 용			
1.			
2.			

[별첨 2] 아카데미 발전 의견서

아카데미 발전 의견서			
소속(본당)		성명(세례명)	
차기 아카데미 주제 :			
기타 발전 의견 :			

Memo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the memo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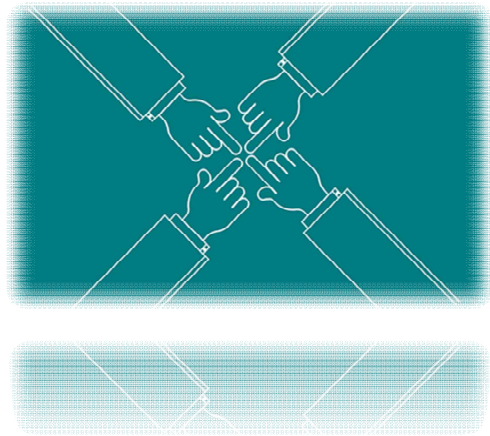
Memo

Blank memo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제2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 ◇ 발행일 : 2019년 10월 15일
- ◇ 편집인 : 김태창, 이세영, 윤철현, 이재웅, 최재석, 박시현, 이상현
- ◇ 감수인 : 부산교구 총대리 권지호(프란치스코) 신부
- ◇ 발행인 : 부산교구 평협회장 도용희(토마스아퀴나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에페 4,3)